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새해 2023년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조선로동당의 향도 따라 류레없이 간고한 2022년을 백절불굴의 투쟁과 전진으로 궁지 높히 결속하고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에 넘쳐 새해를 맞이한 온 나라 인민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 되시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고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주체112(2023)년 새해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의 성스러운 위업에 고귀한 한평생을 다 바치시어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높고 강대한 당과 국가, 인민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새해의 인사를 드리시었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혁명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당중앙 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웅대한 목표실행을 위해 당과 인민이 부

에 즈음하여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조선로동당과 국가,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

는 금수산태양궁전은 가장 경건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김정은원수님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

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여한 무거운 책무를 다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실질적이며 비약적인 변화발전을 반드시 성취할 굳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시기자

본시기자

본시기자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대표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사회주의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온 나라 대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주체112(2023)년 새해의 첫날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대표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의 대회합을 당과 국가의 증대사로 내세우시고 온 나라의 관심과 축복속에 성대히 진행하도록 한량없는 은정을 거듭 베풀어 주신 아버지원수님을 희망넘친 설날에 만나뵙고 꿈결에도 소원하던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된 학생소년들의 가슴

가슴은 무한한 행복감으로 세차게 높

뛰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아버지원수님께서 활영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소년단원들을 억만금의 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여기시며 뜨거운 열과 정을 다해 훌륭히 키워주시는 원수님을 격정속에 우러르며 열광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었다.

아버지원수님께 소년단대표들이 붉은 벚타이를 매어드리고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다함없는 고마움과 새해축원의

인사를 담아 향기그득한 꽃다발을 삼가 올리었다.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 하시며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를 통하여 주체적소년운동의 빛나는 력사와 전통, 혁명의 붉은 피줄기를 곳곳이 이어가시는 조선소년들의 활기찬 기상을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하고 새해를 뜻깊게 맞이한 소년단대표들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내시었다.

원수님께서서는 조국번영의 새로운 한해

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

하며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참으로 크나큰 힘이고 기쁨이라고 하시면서 혁명의 훌륭한 교대자인 300만 소년단원들이 있기에 주체위업의 전도와 사회주의조선의 앞날은 무궁창창하다고 말씀하시었다.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이 부디 모두 건강하여 우리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지덕체를 갖춘 유능한 인재로 더욱 씩씩하게 성장해줄것을 바라시면서 참가자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육친의 정을 또다시 받아안은 참가자들은 아버지원수님을 우러러 감격과 환희에 넘쳐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원수님께서서는 오래도록 대표들을 향해 손저어주시며 전체 소년단원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었다.

무상의 행복을 받아안은 소년단대표들은 사회주의조국의 부흥발전을 위하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강국건설의 역군들로 항상 준비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었다.

본시기자

본시기자

본시기자